# 戴鈞衡의 교육사상과 실천

金 華 珍*

<목 차>

1. 서론
2. 청대 서원 정책과 桐城 교육
3. 戴鈞衡의 교학 실천: 桐鄕書院 설립
4. 桐鄕書院의 교학이념과 의의
5. 결론

## 1. 서론

桐城派가 근 200여 년이란 세월동안 자신들의 사상과 고문을 전파하며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상이 청 정부의 구미에 맞아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문학이론·고문창작이 탁월하다는 점 이외에도 '교육' 즉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1] 본 논문은 동성파 연구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인물과 문학 중심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戴鈞衡이 창설한 桐鄕書院을 중심으로 동성지역의 교육 실태를 고찰하여 동성지역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동성파에 대한 학술적,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徐壽凱, <桐城文派綿延久遠原因蠡測>, ≪桐城派研究論文選≫, 安徽社科院文學所等編, 1985년, 92쪽.



제작되었다. 桐鄕書院은 동성후기 대표인물 戴鈞衡(1814-1855년, 字 存莊, 號 蓉洲, 桐城 孔城 사람)이 1840년에 창설한 것으로, 현재 동성지역에 유일하게 전해 내려온 청대 서원이다.[2] 이 서원은 咸豐3년(1853년)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한 재화를 겪게 되어 폐허가 되지만, 同治6년(1867년) 동성인 買程姓이 가옥을 서원으로 개조하여 그 명맥을 이어나가다가, 신문학이 유입되고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듬해인 光緖32년(1906년)에 '公立桐鄕高等小學堂'으로 바뀌게 된다. 동향서원은 수십 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동성지역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동성교육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채웠다.

본고에서는 동향서원의 설립과정과 운영방침, 교학내용 등을 바탕으로 동성파 후기의 주요 문인 戴鈞衡의 교육사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 사상을 실천했는지 고찰해 봄으로써 당시 동성지역 서원의 본보기로 뽑히고 있는 동향서원의 설립 의의와 동성파 형성과 전파에 있어 서원 강학의 역할을 짚어보겠다.

## 2. 청대 서원 정책과 桐城 교육

### (1) 청대 서원 부흥 정책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중국의 서원 및 그 교육방법은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학술사상사·문학사·교육사·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특히 청대 학술사상의 이론적 토대마련과 사회적 보급에 있어 서원의 역할은 여타시기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문학 발전의 이론적 뒷받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2) 현재 서원 안에 있던 曠懷園과 漱芳精舍의 옛 터는 희미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桐鄕書院記≫ 비문과 朝陽樓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www.kci.go.kr

해 왔다.

청대의 서원정책은 금지・제한정책으로부터 독려・제창을 거쳐 개혁・폐지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을 거쳤다. 청초 順治시기 정국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데다, 명말 사대부들이 서원 강학을 통해 시정을 비판했던 교훈을 거울삼아 서원에 대해 강력한 억압정책을 펼쳤다.[3] 청 정부의 억압아래 청초 서원의 발전 행보는 어려움을 겪었다. 康熙이후, 청조는 전국통치가 점차 안정되자 정국은 발전시기에 접어들었으며, 백성에 대한 사상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원 부흥 정책을 펴게 된다. 청초 서원 억제 정책 대신 文敎 정책의 일환으로 인재 등용을 위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청 중기에 이르러 학교 교육은 점차 변질되어 인재 양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儒學도 점차 침체하였으며, 敎官들의 학식수준은 매우 낮아 '스승'과 '제자'라는 허울만 있을 뿐 실상 교학에 있어 가르침과 훈계는 보이지 않았다.[4] 이러한 상황 속에서 雍正 11년(1733년)에 서원 설립을 허가하기 시작했으며,[5] 康熙・雍正・乾隆도 여러 차례 각 지역 서원을 위해 편액을 써 주고 서적을 하사하는 등 서원 부흥을 독려했고, 관리들은 기부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원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 (2) 동성 지역 교육 문화

안휘성의 남쪽에 위치한 동성현은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수로가 발달한 지리적 환경을 갖춘 곳이었다. 육로교통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 ≪大淸會典・儒學・學規≫, 順治 9년(1652년)칙령: "各提學官督率敎官生儒, 務將平日所習經書義理, 著實講求, 躬行實踐, 不許別創書院, 群聚徒黨, 及召如地方遊食無行之徒, 空談廢業."
4) 趙爾巽, ≪淸史稿・選擧一・學校一≫, 3116쪽 참고.
5) ≪大淸會典・儒學・學規≫, 雍正 11년(1733년) 칙령: "至十一年命各省於省城設立書院, 招致生徒講誦肄業, 各給銀千兩爲營建之費, 並預爲籌畫, 贍給師生膏火."



동성현의 사람들은 주로 수로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이나 대도회였던 南京으로 감으로써 외부와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동성현에서 거주하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거나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명대부터 시작하여 1827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동성현에서는 모두 201명의 진사와 355명의 擧人이 배출되었다. 이 숫자는 安慶府에 속한 懷寧, 潛山, 太湖, 宿松, 望江 등 5개 현의 진사와 거인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중 청대이후 진사의 수는 명대 전체의 130%를 넘어서고 있고 거인의 경우는 3배가 넘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乾隆년간에 張英(1637-1708), 張廷玉(1672-1755) 부자가 연이어 대학사를 지내게 되는 것도 많은 동성현 출신들이 관직에 진출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서-과거'의 길을 걸었던 동성현 문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면 대부분 교육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는데, 家學과 私淑이 발달했던 동성지역은 서원이 많지 않았으며 서원의 영향력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명대 이 지역 서원에 관한 기록도 嘉靖년간 胡纘宗이 설립한 桐溪書院과 萬歷년간 鄭濤가 세운 龍山書院, 王廷試가 세운 桐陽書院 정도에 그칠 정도로 숫자가 적었다. 청대에 들어서도 초기에는 서원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당시 공익을 위해 의연금으로 세운 義塾・義學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6] 동성파의 창시자인 戴名世・方苞 등도 私塾을 통해 자신의 고문을 전파하고 經文과 辭賦・制義時文 등을 가르쳤는데, 이처럼 수준 높은 家學과 세속적이고도 실용적인 私塾이 흥성했던 동성지역에 있어 서원은 그리 필요하지 않았던 듯 싶다.

그러나 청 중기에 들어서자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리면서 동성지역에도 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毓秀書院・培文書院・天城書院・白鶴峰書院・豐樂書院과 桐鄕書院 등의 서원이 잇달아 세워지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동성지

6) 道光, ≪續修桐城縣志≫ 권9, ≪人物志・名宦≫ 참고.

www.kci.go.kr

역의 문화 교육사업, 심지어는 주변 지역의 문화 교육의 발전까지도 촉진하게 된다. 姚鼐에 이르러 동성파 고문이론은 완비되었고, 그가 제기하였던 "義理·考證·辭章"론[7]과 '陰陽剛柔'론 등은 姚瑩·劉開·方東樹 및 그 문하생 方宗誠·蘇惇元·戴均衡 등에게 전수되었는데 주로 서원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동성파는 家學 전승·私塾 양성 등의 전통교육방식 이외에도 서원 강학을 통해 영역을 초월한 문학유파를 형성하였으며, 교육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는 동성의 학술 사상과 문학이론을 전파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 3. 戴鈞衡의 교학실천: 桐鄕書院 설립

淸 道光년간 전국의 서원이 쇠퇴하는 형세와 달리, 동성 지역은 서원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의 서원 부흥 정책으로 인해 당시 동성현에도 잇달아 서원을 창설하게 되는데,[8] 北鄕의 孔城지역 출신이었던 戴鈞衡은 북쪽에 토지가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없는 것을 보고는 동향 문인 文聚奎·程恩綬 등과 함께 뜻을 모아 道光 20년(1840년)에 동향서원을 창설하게 된다. 戴鈞衡은 동향서원을 통해 동성파의 文統을 이어나가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또한 서원의 폐단이 심했던 당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통해 동성 서원운영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7) 曾國藩, ≪曾國藩文集≫, <歐陽生文集序>: "必義理爲質, 而後文詞有所附, 考據有所歸." 요내는 문장은 반드시 고증 , 사장을 수단으로 삼아서 유가의 義理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8) ≪桐鄕書院志≫ 권1 <輿地>: "計自嘉靖以來, 書院軼廢軼興, 今見存者, 城中三, 西·南各鄕一, 合桐鄕書院, 凡五." "邑地廣, 向分四鄕·城中. 及西·南俱各建有書院, 惟生等北鄕獨無." "遂以是秋購汪氏宅爲書院. 明年飭工改修之. 厥秋, 屋翅成." 趙所生·薛正興: ≪中國歷代書院志≫,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년.



### (1) 동성파 文統 전승과 인재양성

戴鈞衡은 동성파 말기의 대표 작가로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9] 劉聲木는 ≪桐城文學淵源·撰述考≫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方東樹를 오랫동안 스승으로 섬겼으며, 그에게서 고문법을 전수받아 문학에 전심을 다해 실력이 탁월했다. 北宋 五子書(周子, 伯程子, 張子, 叔程子, 朱子)를 읽어 이치를 밝히고; 經을 읽어 학문을 풍요롭게 하고; 史書를 읽어 지식을 넓혔다. 詩·文·經學에 탁월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그 자신은 오히려 문장의 이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신묘함은 空에 운용되지 못하며, 기세는 안에서 섞이지 못하고, 흥취는 여운을 남지지 못한다고 여겼다. 方苞·劉大櫆·姚鼐의 고향에 태어나 고문을 소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10]

戴鈞衡은 方東樹의 제자로서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曾國藩·邵懿辰·魯一同·楊彝珍·吳敏樹 등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글쓰기 요령과 학문적 식견을 넓혔다. 또한 동성의 문화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매우 중시하여,[11] 자신의 교학 이념을 동향서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동향서원의 설립은 청대 학술사상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康·雍·乾 성세를 거쳐 18세기 초기에 이르러 국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정치는 부패

9) 戴鈞衡은 비록 40여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味經山館文鈔≫ 4권·≪味經山館文續鈔≫ 3권·≪味經山館詩鈔≫ 6권·≪味經山館詩續鈔≫ 4권·≪公車日記≫ 2권·≪尺牘≫ 2권·≪書法補商≫ 17권·≪書傳纂疑≫ 6권·≪潛虛先生文集≫·개정판≪望溪文集≫·≪桐城文錄≫·≪古桐鄕詩選≫ 등은 그의 창작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문학적 가치도 뛰어나다.

10) 劉聲木, ≪桐城文學淵源·撰述考≫, 合肥: 黃山書社, 1989년, 265-266쪽: "師事方東樹最久, 受古文法, 銳志文學, 精力絶人, 求之宋五子書以明其理, 求之經以裕其學, 求之史以廣其識. 詩文經說, 卓然可表見於世, 猶自謂其文理不能征諸實, 神不能運於空, 氣不能渾於內, 味不能餘於外. 自以生方苞·劉大櫆·姚鼐之鄕, 不敢不以古文自任."

11)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3 <上羅椒生先生書>: "鈞衡自幼讀書, 不甘爲無用之學. 每以人心世道爲憂, 寂居田野, 凡一省一郡一縣利弊, 有所見聞, 輒作文以言得失. 父師恐遭時忌, 輒命取稿焚之. 及入都, 私懷欲言者, 更非一事. 旣念事無難易, 得人則成. 國無安危, 得人則治."

www.kci.go.kr

하고 각종 사회 병폐가 드러나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문화 사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주류를 이루던 乾嘉學派가 오로지 훈고와 고증에만 매달려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자 세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건가학파의 대세가 물러가고 宋學이 다시금 권토중래하게 되자, 줄곧 宋學을 추종해오던 동성파는 크게 부흥하게 된다.

동성파 문인들은 晉·冀·魯·豫·蘇·皖·湘·鄂·浙·閩·贛·粵·桂 등 북쪽으로는 燕薊, 남쪽으로는 海濱、동쪽으로는 扶桑, 서쪽으로는 巴蜀에 이르기까지 각 성에서 활발한 강학활동을 펼쳤다. 그들이 교육 사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관리사회에 염증을 느꼈거나, 빈곤한 생활 때문이거나 혹은 후학자 양성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서원 강학을 통해 경세치용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동성파의 문학사상을 널리 전파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동성파가 근 200여 년간 지속되며 고문·시·경학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동성파와 교육의 깊은 인연은 창시자인 戴名世와 方苞 두 사람부터 청말의 殿軍 馬其昶에 이르기까지 姚瑩 등 극소수의 정치권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청대 전국 각 서원에서 활동했던 동성파 문인들은 100여명에 이른다.[12] 劉大櫆, 姚鼐는 말할 것도 없고, 嘉道년간 錢儀吉, 姚瑩, 劉開, 姚椿, 梅曾亮, 方東樹이 강학을 통해 학문을 전수했고, 同治·光緒년간에는 吳汝綸, 張裕釗 및 그들의 제자 范當世, 賀濤, 馬其昶, 姚永朴 등이 모두 서원에서 강학활동을 하였다. 이렇듯 수많은 동성파 문인들은 문학창작 활동 이외에도 제자 양성에 주력하였는데,[13] 민간에서 강학 활동을 하거나 조정과 지방의 교육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맡는 등 교학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12) 劉聲木, ≪桐城文學淵源考≫, 錢仲聯 주편의 ≪中國文學家大辭典·清代卷≫, 梁淑安 주편의 ≪中國文學家大辭典·近代卷≫, 徐安平, <書院與桐城文派傳衍考論> 참고.

13) 尤信雄은 ≪桐城文派學述≫의「桐城之師承」부분에서 劉聲木의 ≪桐城文學撰述淵源考≫를 참고로 하여 동성파 師承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교학 활동은 동성파의 창작 활동을 교육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하여, 약 1,200여명의 동성파 작가를 배출함은 물론 그들의 고문과 문학이론을 중국 각 지역에 전파하였고, 교육 사상과 교육 심리학 사상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동성파 후기(대체적으로 嘉道년간에서 宣統년간에 이르기까지) 작가인 戴均衡은 고향의 문헌을 통해 동성파 文統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이라 여겨,[14] 蘇敦元와 함께 ≪望溪文集≫을 증보하여 개정하고 方存之와 함께 ≪桐城文粹≫을 편찬하는 등 동성문학의 성과를 총결하여 동성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동성파의 시조라 할 수 있는 戴名世의 유작 250편과 연보를 함께 실어 ≪戴南山先生全集≫14권을 편찬하였다. 당시 대명세가 문자옥으로 사형을 당한지 이미 200여년이 지난 때였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戴名世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戴鈞衡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명세의 문집을 펴낸 것이다. 戴鈞衡의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방포와 함께 동성파의 창시자인 戴名世의 문학작품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 桐鄕書院을 창립한 의의 역시 동성파 선인들의 文道를 계승하고, 宋學을 전파하며, 정국을 바로잡는데 있었다. 戴鈞衡의 스승이자 동성파의 주요 중견인인 方東樹는 ≪桐鄕書院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무릇 오늘날 이 서원을 창설한 이유가 어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학문의 위대함이 어찌 明道를 구함이 아니겠는가? 道는 숨어있어 밝히기 어려우니 지혜·어짐·용기가 없으면 학문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지금 이 서원을 설립하니 지혜·어짐·용기의 실질을 얻어내어, 이를 학문에 펼쳐내면 明道를 구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무릇 다른 서원의 설립은 단지 시나 문장 등을 숙독함으로써 서원의 良法美意를 혼탁하게 한다."[15]

14) 曾國藩 <歐陽生文集序>: "在桐城者有鈞衡存莊, 事植之久, 尤精力過絶人, 自以爲守其邑先正之法, 嬗之後進, 義無所讓也."

15) 方東, <桐鄕書院記>, ≪桐鄕書院志≫ 권6 <藝文>: "夫今所以建此書院者, 豈非爲勸學與? 學之大豈非欲求以明道與? 道隱而難明, 非智·仁·勇無以開入門之途. 今此書院之建, 而固以確效乎智·仁·勇之實. 則由此推於學而求明道也不難矣.……夫他書院之設, 徒以辭章記誦之末

www.kci.go.kr

許完寅 또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아! 과거의 폐단이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거늘, 문사의 폐단은 오늘날 더욱 심해졌구나. 나는 내 고향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강학하고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 부귀공명에 유혹되어 경솔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 孔·孟의 도를 계승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큰 인재가 되어 과감히 스스로 우뚝 서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학문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그것을 실천하면 덕행이 되고, 그것을 펼쳐내면 문장이 되며, 그것을 사용하면 위대한 공적이 된다. 이른바 인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선비를 만드는 것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16)

許完寅는 당시 서원 교육의 주요 폐단은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인해 인성교육은 뒷전인 교육체제에 있다고 여겼다. 戴鈞衡은 동향서원 설립을 통해 과거합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고문에 치중했던 편면적인 교육체계를 비판하면서 유가 경전을 통해 학생들의 수양을 제고시켜 실력과 인격이 겸비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修己治人'이라는 유학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강학과 자기 수양의 도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 (2) 관부지원과 민간기부

송원시기 서원은 대부분 민간이 창설한 것으로 운영방법·교학내용·교학방법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자유로웠다. 명청시기 서원은 점점 정부가 관여하게 되었는데, ≪中國書院硏究≫의 통계에 의하면 청대 3868곳의 서원 중 官立

溷此良法美意也哉."

16) 許完寅, <桐鄕書院記>, ≪桐鄕書院志≫ 권6 <藝文>: "噫! 科擧之敝不自今日而始, 而文詞之敝則今日尤甚.吾願吾鄕之士講習於其中, 無誘乎功名利祿而存苟簡之心. 相與究孔孟之遺, 爲修己治人之大, 勇於自立而以積久持之. 待其學之成, 履之爲德行, 發之爲文章, 而用之爲豐功偉業, 斯所謂成人才於此出, 斯所謂造士於此始矣."



서원이 56.61%이고 私立서원은 24.20%, 그 밖에 확실치 않은 것(문헌에 창설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18.64%, 교회가 창설한 것이 0.57%였다.17) 郭齊家선생은 청대 781곳의 신설 서원중 官立서원은 78.74%이고 私立서원이 9.65%라고 하였다.18) 비록 두 개의 통계가 차이가 있지만 이를 통해 청대 서원이 정부운영이 민간운영보다 훨씬 많았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관부는 서원의 훈장과 교사 초빙, 경비 조달, 교학 내용 및 안배, 학생 모집 등 모든 방면을 관장하였는데,19) 이는 서원이 사회문화의 주류를 형성하여 조정을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관부의 서원에 대한 억압과 관리는 동향서원 설립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桐鄕書院志≫에 의하면, 道光20년 7월 8일 戴均衡·文聚奎·程恩綬·劉宅俊 등은 서원 설립을 위해 <議擧首事公陳邑侯狀>을 올려 현령에게 서원 창건을 비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6일에 비준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서원의 개강과 기부금 마련 등에 관한 일로 끊임없이 문서를 올리는데, 서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반드시 현령의 비준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원들은 모두 서원 설립에 기부금을 내거나 서원의 경영을 맡았는데, 당시 동성에 세워졌던 培文·白鶴峰 등의 서원도 모두 관원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것이다.20) 동향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원 설립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동성인들에게 관부의 지원 없이는 기부금을 거둬들이는 일조차 힘겨웠다. 실제로 동향서원은 기부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道光 20년(1840년) 7월 20일 <首事公稟陳邑侯狀>을 올려 관방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자 8월 14일 관방은 <勸捐示>를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鄕의 각 유생들과 서민들은 보아라. 너희들은 서원이 문교를 진흥하는 중요

17) 陳谷嘉·鄧洪波 주편, ≪中國書院制度硏究≫,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7년, 359쪽.
18) 郭齊家, ≪中國古代學校≫, 北京: 商務印書館, 1998년, 174-175쪽.
19) 道光, ≪續修桐城縣志≫ 권3 <學校志> 참고.
20) ≪桐城書院考≫, ≪桐鄕書院志≫ 권1 <輿地>: "嘉慶 23년, 知縣 呂榮과 마을 사람들이 은을 기부했다."

www.kci.go.kr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건축하기 위해 공사비가 막대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각자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모두 동참하여 완성하도록 하여라. 본 縣의 신망을 저버리지 마라. 모두 엄격히 따르고 어기기 말아야 한다."[21] 이후에도 관부는 여러 차례 기부를 장려하고 독함으로써 동향서원 설립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초기에는 관부의 주도하에 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점차 서원의 학생들이 과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되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22] 그 결과 동향서원은 大錢 9000串零9820文의 자금을 조성하여 서원 건물 5채를 설립하였고 열 몇 곳에 이르는 전답도 보유하게 되었다.

### (3) 체계적 서원관리

앞서 말했듯이 창립을 위한 기부금 조성은 물론, 자금 부족으로 훈장이 없을 때는 관원들이 기간을 정하여 돌아가며 훈장직을 맡았다. 시험지는 현지사의 사전 점검과 봉인을 거치며, 시험을 치를 때에도 현지사의 감독아래 행해지는[23] 등 거의 모든 업무를 관부에서 관리했다. 이렇듯 창립을 비롯하여 수리와 복구・경비・교사 초빙・학생모집 등 서원의 모든 관리가 관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嘉道시기에 이르러 국세가 쇠락해지자 서원도 부패의 추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서원의 각종 규제도 유명무실이 되었고, 경비는 지원되지 않

21) ≪桐鄕書院志≫ 권2 <刱建>: "北鄕各保紳士庶民人等知悉: 爾等須知書院爲振興文教之要務, 所需工費浩繁, 不能不作集腋成裘之擧. 務各踴躍捐輸, 共襄善擧. 毋負本縣之厚望焉. 各宜凜尊毋違."

22) ≪桐鄕書院志≫ 권2 ≪刱建・蔣邑侯稟詳各上憲立案公文≫: "所有該鄕各戶捐金, 自卑職抵任以來, 前後兩載給示勸捐, 屢次催繳. 後經課開三次, 士子均各踴躍."

23) ≪桐鄕書院志≫ 권3 ≪章程・雜款八則≫: "先期半月値年董事會同常董稟請邑尊于課期前一日按臨書院. 然惟新人邑侯遇課必請親臨. 其已經親臨一次者, 遇課或于前二日請發題紙, 封固, 加印."



아 서원의 수량도 극감했다. 嘉慶 22년(1817년), 황제가 친히 서원 재정비를 공포하였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道光년간에 이르러 서원의 부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거울삼아 동향서원은 관리 방면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고자 했다.

戴鈞衡은 직접 동향서원의 행정을 관리했으며, 강당에 올라 수업도 하였다. 그는 서원을 위해 ≪桐鄕書院志≫를 펴냈는데, 이 책에는 <課例十二則>・<課規七責>・<董事九則>・<雜款八則>・<試資六則>・<補議章程數則> 등 서원의 각 항목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동향서원의 건립・수업・시험・상금제도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書院志'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정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경비 지출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했다. 당시에는 관리들이 서원을 사적인 연회장소로 많이 사용하여 재정 낭비가 심했는데, 戴鈞衡은 이러한 사적인 쓰임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제정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24] 서원의 경비는 주로 시험 준비와 상금으로 지출되었는데, 매번 시험이 끝나면 董事가 공고문을 통해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적어 공개함으로써 착취를 막았다.[25] 董事에 대한 규정도 매우 엄격하여, "공적인 일로 서원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음식은 4그릇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인당 한 명의 시종을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며, 반드시 서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에서 숙식을 허가한다. 마부는 오직 식사 한 끼만을 제공하면 된다."[26]라고 하여 착취와 남용을 근절하였다.[27]

서원의 일상적인 사무는 董事 몇 명이 관리했는데, 서원 제도는 빈틈없이

24) ≪桐鄕書院志≫ 권3 ≪章程・雜款八則≫: "院乃培養人才之地, 不准地保借作官長公館. 官長非因書院公事卽至孔城, 董事不得請臨書院."

25) ≪桐鄕書院志≫ 권3 ≪章程・課例十二則≫: "每大・小課旣畢, 董事于榜發給完獎資之后, 必將是課所用經費若干分列數項, 開明張貼, 曉于大衆以杜侵漁."

26) ≪桐鄕書院志≫ 권3 ≪章程・董事九責≫: "事因公聚議書院, 飮食毋得過四簋. 一人只許攜帶仆從一人, 且必能爲書院任事, 方准在內食宿. 其車夫只給便飯一頓卽行."

27) ≪桐鄕書院志≫ 권2 ≪刱建・蔣邑侯稟詳各上憲立案公文≫: "一切應用, 錢財無侵無濫, 非該首事協力同心何能若此."

www.kci.go.kr

치밀하고 질서정연하였으며 상벌이 분명하였다. 大課·小課·散題課[28] 등의 시험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였으며, 성적에 따라 상금과 상품을 수여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16,000文의 장려금을 수여했으며, 우수한 詩文은 선정하여 판각하였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보조해 주었으며, 향시를 치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30,000文을 보조해 주었다.[29] 이렇듯 엄격한 관리와 공정한 평가로 인해 동향서원은 설립한지 채 3년도 안되어 인재를 배출하고 명성을 날리게 되었으며, 타 지역에서 유학 온 선비들이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전국의 서원이 이미 쇠퇴한 상황에서도 동성의 작은 마을 孔城에서 서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戴鈞衡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 3. 桐鄕書院의 교학이념과 의의

桐鄕書院은 道光 21년(1842년) 가을 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열었으며, 설립 취지는 문풍을 진작시키고 교화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戴鈞衡은 동향서원 창설이후, 학교 교육업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학이념

28) 大課는 매년 봄(2월 15일)·가을(9월 15일)에 각 한 차례씩 시행되고, 小課는 치르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매달 한 차례 시행되었다. 散題課는 음력 정월과 섣달 및 大課가 있는 달을 제외하고 매 달 한차례씩 치러진다. 이는 먼 곳에서 시험을 치르러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식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20리마다 하나의 임시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 치러졌으며, 매달 25일 모아서 결과를 평가하였다. ≪桐鄕書院志≫ 권3 ≪章程·課例十二則≫ 참고.

29) 예를 들어, 生員 시험에서 세 번 뛰어난 성적을 거두거나, 童生(생원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시험에서 세 차례 상위 10위안에 들면 매월 학자금 은 다섯 전을 보조해줬다. 또한 서원은 生員과 監生은 3년에 한 번씩 金陵에 가서 향시를 치르는데, 일인당 한 과목에서 가장 많게는 30000文을 지원해줬다. 모든 지원금은 董事가 직접 金陵에 가서 시험에 참가한 生監들에게 지급했다.



을 명확히 하고 <桐鄕書院四議>를 편찬하여 '훈장 선발(擇山長)'·'선조 제사(祀鄕賢)'·'경서 수업(課經)'·'서적 소장(藏書)'에 관한 자신의 교육이념과 요지를 서술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한 훈장 선발을 통한 서원 폐단 극복

戴鈞衡은 서원의 4대 건학이념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擇山長'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山長이라 함은 송대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 묻혀 사는 학식과 도덕이 높은 선비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청대에는 서원에서 강학을 주관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로 훈장을 뜻한다.[30]

관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었던 당시 서원은 관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훈장이 되었는데 실력보다는 인맥을 동원하거나 뒷거래가 만연하여 교사들의 수준이 저급하기 그지없었다.[31]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고작 팔고문이나 試帖 정도에 불과했으며, 훈장들은 서원과 학생들의 관리보다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의 관리와 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훈장들은 그저 학생들의 학비나 탐낼 뿐 인재양성에는 관심조차 없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32]

동향서원은 초기에 경비 부족으로 인해 외부에서 훈장을 초빙할 수 없어 관원들이 돌아가며 수업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30)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山長之名, 始於宋, 及元時, 與學正·教諭並列, 爲官選於禮部及行省宣慰司."

31) ≪大淸會典事例≫ 권395 ≪禮部·書院·各省書院≫: "各省教官, 廢棄職業, 懶於月課, 書院義學, 貪緣推薦, 濫膺講席, 並有所取束修, 身不到館者, 殊失愼選師資之義.", 馬鏞, ≪中國教育制度通史≫ 제5권,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11쪽 참고.

32) ≪淸朝續文獻通考≫ 권1 ≪學校考七·書院≫: "其所日夕咿唔者, 無過時文帖括, 然率貪微末之膏火, 甚至有頭垂垂白, 不肯去者." 馬鏞, ≪中國教育制度通史≫ 제5권,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10-211쪽 참고,

www.kci.go.kr

상황이 이렇게 되자 戴鈞衡은 서원 장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 이후에 훈장을 초빙하게 되면 반드시 董事 및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 인격과 수양을 갖추고 노련하고 덕을 지닌 선비를 초청하며, 관리의 천거를 거치지 않는다.[33]

즉 훈장을 선발함에 있어 독단적이지 않고 공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비록 관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훈장은 각 항목의 업무를 경영관리하고, 관부와 교섭하며, 기부자와 교류하는 등 서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괄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원의 발전여부는 훈장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학식과 행실이 본받을만해야 하며, 선발 과정 또한 관부의 독단적인 천거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다.

### (2) 鄕賢 제사를 통한 德敎 정립

이 당시 전국 각 지역의 서원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공자와 그의 72명의 제사를 지내는 큰 제사와 현지의 선조들을 제사 지내는 작은 제사가 있었다. 戴鈞衡은 큰 제사와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의 學宮에서 지내기 때문에 선조들의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여겼다. 桐鄕書院 창건 초기, 戴鈞衡은 서원에서의 제사 활동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3) ≪桐鄕書院志≫ 권3 <章程・雜款八則>: "惟桐城各書院俱無, 皆因經費不足也. 吾鄕書院現亦費拙, 未能專請山長." "日後若請山長, 必由董事及諸生議聘經明行修・老成碩德之士, 不由官長薦擧."



> 옛날에 처음 학교를 세울 때, 반드시 돌아가신 성현과 스승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계절마다 돌아가신 스승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비단 德과 道를 숭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학자들에게 선현들을 경모하고 평소의 훌륭함을 흠모하여 본받아 수련하여 덕을 이루게 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모범을 보여 감히 서원에서 무책임할 수 없게 한다.[34]

戴鈞衡은 봄・가을 중 길일을 택하여 수험생들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냈다. 서원에 모여 배향된 선현의 정신과 뜻을 되새기며 학문을 닦고 자신의 인격을 도야했으며, 나아가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고 이끌어가는 교두보와 지침을 마련하였고,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戴鈞衡은 동성의 선현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서원에서 제사지낼 만한 이들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동성 교육사에 있어 강론 학술의 서막을 열어 嘉靖년간이후 동성 풍속과 교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何唐을 비롯하여, 方以智의 증조부이자 시문에 뛰어났으며 강학에 종사하여 동성 교육에 이바지 했던 方明善 및 동성파의 핵심인물인 方苞・姚鼐 등이 있다.[35] 특히 고증학이 흥성하여 진정한 학문의 본의를 잃어가던 당시에 "義理・考證・文章"이라는 절충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근 40여 년 동안 강학에 종사하면서 모범적인 학문의 길을 제시하였던 姚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제사를 통해 학문적 업적을 기렸다.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과거를 통한 벼슬밖에 없었던 당시에 개인의 인격 함양이나 학문의 목적으로 하는 학문관을 토착화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戴鈞衡은 동성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통해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동성현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34)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古者始立學, 必釋奠於先聖先師, 其餘各學, 亦四時有釋奠先師之典, 是非徒以尊德尙道也, 其將使來學者, 景仰先型, 欽慕夙徽, 以砥礪觀摩而成德, 而亦使有敎者, 有所矜式, 而不敢苟且於其間."

35)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吾鄕唐宋以前, 儒者罕見. 自明正德之世, 下逮國朝, 講正學, 敦實行者, 凡數十輩, 其尤著者數人, 曰何省齋先生, 桐鄕知學自先生始也. 曰方明善先生, 曰方望溪・姚惜抱二先生."

www.kci.go.kr

### (3) 經學을 통한 修己 강조

인재양성・지역분포・교학내용 등의 방면에서 살펴볼 때, 대부분의 청대 서원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초 雍正년간 이후 각지에 官立서원들이 다수 설립되면서 서원은 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官學을 능가하는 청대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36] 당시 鄕試나 會試의 시험내용은 주로 사서오경과 程朱集注에 관한 것이었으며 시험 문체는 八股文, 試帖詩, 策, 表, 判 등이었는데, 그 중 사서오경의 답은 팔고문으로 작성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서원의 교육은 과거 공부가 위주가 되었으며 팔고문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 되었다. 설령 교학내용이 理學이나 漢學을 위주로 하는 서원일지라도 학생들의 출세를 고려하여 팔고문을 강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戴鈞衡은 팔고문 위주의 강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팔고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단 이러한 교육관은 戴鈞衡뿐만이 아니라, 팔고문의 고수였던 戴名世를 비롯하여 方苞, 劉大櫆, 姚鼐, 方東樹 등 동성파의 문학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37] 방동수의 제자였던 戴鈞衡은 동성파 선현들의 뜻을 계승하여 경세치용의 학문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글의 내용보다는 대우와 성운 등 극도의 수사학적 기교만을 강조했던 팔고문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팔고문을 중시했던 당시 상황은 당시 戶部尙書였던 羅惇衍(1814-1874, 字 星齋, 號 椒生)이 동향서원을 위해 지은 <桐鄕書院記>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36) 원래 과거제와 직결된 관립의 교육기관은 官學이었지만, 청대 관학은 서원에 비해 그 숫자가 적었으며, 서원처럼 학생들을 수용하여 가르치지 않고 다만 孔廟나 考棚을 설치하여 때에 따라 학생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시험을 치를 따름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기능을 가진 중・고등교육기관은 서원뿐이었다. 李國鈞, ≪中國書院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4년, 801-803쪽.

37) 실제로 劉大櫆나 方東樹와 같은 경우는 매번 과거시험에 도전했지만 擧人조차도 합격하지 못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로는 시험장의 비리, 시험관의 낮은 식견 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고문에 주력했던 그들에게 팔고문 시험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 오늘날 천하의 府・州・廳・縣은 서원이 없는 곳이 없는데, 학생들에게 단지 時文・帖體・詩賦만 가르치고, 經史를 가르치는 곳은 백 곳 중 두세 곳도 안 됩니다. 經史를 가르치는 곳 역시 단지 箋注만을 찾아 모으고, 인물의 좋고 나쁨만을 가르치니, 여러 학생들에게 성현의 도를 명백히 말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참고하여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明體達用의 학문을 힘써 이루게 하는 곳은 천 곳 중 한 두 곳도 안 됩니다. 동성에는 방포・요내와 같은 유학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물려준 유풍이 멀리 있지 않으니 지금 그들의 현명함과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세속적인 것과 다릅니다.[38]

羅惇衍은 이 문장을 통해 동성파 교육이 경세치용의 經・史・산문을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수많은 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격수양을 위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쓰는 곳은 매우 적음을 지적하면서 동향서원의 교학 이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戴鈞衡은 경학을 연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따져 밝히고 탐구하는 중요한 일로 道術・政事・文藝 등은 모두 반드시 경학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論議>에서 경학의 중요성을 생동감 있는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육지를 건너는 자는 수레에 의지하고, 물을 건너는 자는 배에 의지한다. 그러나 물과 육지의 행로는 반드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나, 만약 막연히 정해진 방향도 없이 단지 온 세상을 표요하고 떠돌아 다녀 돌아가 그칠 곳이 없게 되면 배나 수레는 단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訓詁・章句・名物・典章이라는 것은 경학을 연구하는 배이자 수레이다. 경학을 연구하면서도 성인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으면 바람에 요동치고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39]

38) <桐鄕書院記> 碑文: "今天下府州廳縣, 蓋莫不有書院矣, 課士者, 但以時文・帖體・詩賦, 而以經史課者百不二三見焉. 課經史者, 又第搜羅箋注, 否藏人物, 求能與諸生講明聖賢之道, 考鏡治亂之本, 實踐返已之修, 以務成明體達用之學, 則千不二三聞焉. 桐城向多儒者, 望溪・姬傳諸先生, 流風未遠, 今又得賢訓導爲主師, 宜乎其教士與! 士之所以學者, 與世俗異也."

39)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陸行者, 資乎車. 水行者, 資乎舟. 然而水陸之行, 必皆有所欲到之處. 苟茫無定向, 第飄搖轉徙於天地之間, 而靡所歸止, 則舟・車徒爲苦人之具. 訓詁・章句・名物・典章者, 治經之舟車也. 治經而不求得聖人之心, 亦何異飄搖・轉徙於天地哉!"

www.kci.go.kr

동향서원의 교학내용은 주로 사서오경・詩詞律賦와 三綱五常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원에서의 시험은 '大課'와 '小課'로 나뉘는데, 이 중 '大課'는 서원 안에서 치러지는 시험으로 시험과목은 四書文・試帖詩・律詩・經解 각 한 수씩이었다.[40] 특히 律賦와 經解에 미약했던 孔城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약 律賦・經解를 숙독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해에 재시험의 기회를 주었다.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경학을 통해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밝힐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단기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고자 했던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학은 호응도가 낮았다. 당시 15세가 되어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 재주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고문에만 매달렸고, 교사나 학생들이 서로 경학을 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41] 이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과 연관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三期開課狀」에서 縣試와 府試의 수석합격자가 모두 동향서원 출신이었다. 이렇듯 과거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자 관부는 동향서원을 높게 평가하였지만,[42] 경학을 통한 인격 수양을 중시했던 戴鈞衡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전환하기 위해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기하였다.

> 지금 諸生과 약속컨대, 사람마다 각자 하나의 경서를 연구하여 철마다 會課에서 서원의 훈장이 구두로 문제를 제출하는데, 매 경서에서 문제를 제출하는데 각자 자신 있는 문제를 맞히면 된다. 한 문제를 맞히면 약간의 장려금을 수여할 것이며, 여러 문제를 맞히면 장려금은 곱절이 된다. 경서 전체를 통달하는 자는 그 해의 학자금을 전부 보조해준다. 두 개의 경서를 통달한 자는 장려금이 두 배가 될 것이다. 많은 자는 그 숫자만큼 장려금이 증가할 것이다. ……십년 안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은 반드시 여러 개의 경서를 통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학생들도 한두 개의 경서는 통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43]

40) ≪桐鄕書院志≫ 권3 ≪章程・課例十二則≫: "每年大課之外, 另設小課, 四書文一首, 試帖一首, 外經解・律賦各一."

41)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自科擧之法行, 人期速效, 十五而不應試, 父兄以爲不才. 二十而不與膠庠, 鄕里得而賤之.……師不以是敎, 弟子不以是學."

42) ≪桐鄕書院志≫ 권2 <刱建・蔣邑侯稟詳各上憲立案公文>: "係屬作育人才・振興文敎之擧".



사서와 삼경을 모두 암송하는데는 대략 6년 정도가 걸렸는데, 戴鈞衡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10년 후에는 일반 학생들도 한 두 개의 경서에 통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과거시험 위주의 서원 교육에 맞서 올바른 학문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학문'과 '인격'이 결합된 교육을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4) 장서를 통한 독서 기회 확대

명청대에 서원은 학문의 전수 기능이외에 장서와 판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戴鈞衡은 원래 서적을 소장하는 곳이었던 서원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장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당시 서원들의 장서가 부족했음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부금을 모아 빈궁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이재민들을 규휼하였으며, 서민의 뜻을 살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등 진보적 의식을 지녔던 戴鈞衡은 당시 동성 지역의 빈곤한 학자들이 서적을 구입하지 못하여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하며 서원 관리에 있어 장서에 큰 의의를 두었다.

> 일인 일가가 고금의 전적을 다 얻으려 함에 권세와 힘이 있더라도 불가능하다.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읽을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을 다 읽었다 할지라도 너무 많아 체계가 없게 된다. 오래되면 마침내 성령을 매몰하게 되어 道義의 옳고 그름, 人事의 득실에 대해 사리에 어두워져 변별할 수 없게 된다.……농부가 오곡

43)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今與諸生約, 人各專治一經, 以歲時會課書院山長發問, 每經擧數事, 各就其所能言以對, 對一事者, 獎若幹. 數事倍之. 通全經者, 歲給膏火常全. 通二經者, 倍之. 多者以次倍增.……十年之內, 天才優者, 必能擧數經, 中才必能通一・二."

www.kci.go.kr

> 을 심는 것은 장차 먹을 것으로 삼아 양생하려 함이요. 일하는 여자가 잠사에 힘쓰는 것은 장차 옷으로 삼아 몸을 따뜻하게 하여 함이다. 오늘날 오곡과 잠사에 힘쓰지 않고, 오직 채소와 자수에만 급급해하니 어찌 양생과 몸을 따뜻이 하는 방법이겠는가！44)

빈궁하여 책을 살 수 없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돈과 권세가 있어 책을 집안 가득 쌓아놓으면서도 읽지 않는 세태를 꼬집어 말하면서 서민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는 乾隆 초년 각 군과 현의 學宮에 조서를 공포하여 가난한 선비들이 가까운 學宮에 가서 서적을 관람할 수 있게 한 조처에 대해 매우 극찬하면서 동향서원도 장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원의 장서는 서원의 인재 양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다. 서원은 강연을 통해 서로 다른 학파의 사람들이 강학할 수 있어 학습의 범위가 넓었으며,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과 함께 스승이 지적하여 훈계하고 가르치는 등 관학과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서원이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장서와도 관련이 있다. 풍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야만 서원의 교학과 연구가 발전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비로소 서적을 통해 자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학파・다른 학술 관점의 스승과 제자가 서적을 통해 서로 참고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戴鈞衡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장서 제도는 동향서원의 인재를 모집하는데 있어 큰 작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빈궁한 선비들의 독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동성지역 문화・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향서원의 교학 이념은 서원 교육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수많은 동성학자들이나 동성파 작가들이 각 지역 서원에서 강학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44)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권2 <論議>: "欲以一人一家盡得古今之典冊, 勢與力必有不能. 卽令得之, 亦必不能盡讀, 卽令盡讀, 而泛而無統. 久之, 遂汨沒其性靈, 而於道義之是非, 人事之得失, 且懵莫能辨.……農夫之殖五穀也, 將以爲食而養生; 紅女之務蠶絲也, 將以爲衣而暖體. 今五穀・蠶絲之不務, 而惟蔬菜刺繡之是急焉, 豈所以養生暖體之道哉！"



## 4. 결론

동성현은 수려한 자연 환경과 소농경작을 위주로 하는 비교적 풍족한 곳이며, 禮敎와 교육을 매우 중시했던 곳이다. 그러나 家學과 私淑이 발달함으로 인해 서원 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곳에서 서원 교육이 부흥했던 이유는 그들의 학술사상이 청 정부의 정치사상과 잘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원교육이 부패하여 쇠퇴하던 시기에도 동성파는 서원 강학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학술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戴鈞衡은 비록 41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교육사상은 동성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동향서원의 설립과 강학활동을 통해 동성파의 문학이론 전파는 물론 동성파가 청말까지 그 세력을 확장・유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원 설립을 통해 빈궁한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동성현의 인재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동향서원의 의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동향서원은 과거제를 위한 교육에만 주력하지 않고 동성파의 학술사상을 계승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과거제에서 팔고문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서와 고문을 통해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음은 동성파의 학술사상과 문학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했던 戴鈞衡의 신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향서원은 청대 동성지역에 창설된 서원중에서 비교적 늦게 세워졌고, 그 지속 기간도 비교적 길어 당시 동성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戴鈞衡이 제기한 <桐鄕書院四議>의 교학 이념을 통해 동성파 작가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대

www.kci.go.kr

동성지역의 문화・학술・교육 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 지역의 대표적 문화 유파인 동성파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 < 參考文獻 >


戴鈞衡, ≪味經山館文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續四庫全書本)
劉聲木, ≪桐城文學淵源考≫, 合肥: 黃山書社, 1989.
趙所生・薛正興, ≪中國歷代書院志≫,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薑書閣, ≪桐城文派評述≫, 北京: 商務印書館, 1930.
康熙, ≪桐城縣志≫, ≪中國地方誌集成・安徽府縣誌輯12≫, 江蘇古籍出版社, 1998.
道光, ≪續修桐城縣志≫, ≪中國地方誌集成・安徽府縣誌輯12≫.
昆岡 등, ≪欽定大淸會典事例≫, 淸光緖石印本.
劉錦藻, ≪淸朝文獻通考≫,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8.
周中明, ≪桐城派硏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9.
楊懷志・潘忠英, ≪淸代文壇盟主桐城派≫,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2.
趙建章, ≪桐城派文學思想硏究≫,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盛朗西, ≪中國書院制度≫, 北京: 中華書局, 1934.
顧樹森, ≪中國歷代敎育制度≫,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81.
李國鈞, ≪中國書院史≫, 長沙: 湖南敎育出版社, 1994.
陳谷嘉・鄧洪波主編, ≪中國書院制度硏究≫,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7.
李國鈞・王炳照總主編, 馬鏞著, ≪中國敎育制度通史≫, 濟南: 山東敎育出版社, 2000.
吳宣德:≪中國地域敎育發展槪論≫, 武漢: 湖北敎育出版社, 2003.
高傳明, <桐城派的敎育思想>, ≪安徽敎育≫,1986.4.
徐天祥, <桐城文化論>, ≪安徽史學≫, 1995.1.
王日根, <明淸民間辦學勃興的社會經濟背景探析>, ≪中國社會經濟史硏究≫,1998.2.
劉相雨, <論桐城派與淸代政治・文化的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2002.1.
白光俊, <桐城派의 講學 傳統>, ≪中國語文學≫,2005.6.
卞孝萱, <桐城派與書院>, ≪南京曉莊學院學報≫,2006.1.





徐雁平, <書院與桐城文派傳衍考論>, ≪南京曉莊學院學報≫,2006.1.


## < 中文提要 >


本文試從戴鈞衡創辦的桐鄉書院入手, 初談戴鈞衡對書院敎育的認識和全新的辦學理念及桐鄉書院對淸代桐城的敎育發展的影響。康熙之後, 在各地書院建設興起、學校敎育衰落之際, 桐城官方敎育之重心卻是學校; 至於道光, 全國書院敎育一片腐敗, 桐城書院竟然振起, 力擔當官方造士之重任。當時書院自身管理不善, 是其衰落的重要原因。有鑑於此桐鄉書院在管理方面做得非常嚴格勤愼而制定了精細的章程。其≪桐鄉書院志≫專立一卷, 列出了書院的各項章程: <課例十二則>、<課規七責>、<董事九則>、<雜款八則>、<試資六則>、<補議章程數則>, 規定嚴格, 尤其經費開支節儉而嚴明。這就是淸中期桐鄉書院大振的成因之一。幷且戴鈞衡在≪桐鄉書院四議≫所提出的"擇山長"、"祀鄉賢"、"課經"、"藏書"對書院敎育有很好的指導和借鑒作用, 桐鄉書院也因此成爲晩淸書院發展史上的一面旗幟。



關鍵詞: 桐城, 戴鈞衡, 桐鄉書院, 敎育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 간 |
|---|---|---|---|---|
| 2009.12.27 | 2010.1.30 | 2010.2.5 | 2010.2.8 | 2010.2.28 |


www.kci.go.kr